

◇다한증수술후 발한분포 및 상하지의 온도변화와 혈류량변화

김용환, 문석환, 조건현, 왕영필, 김세화, 박문섭

가톨릭의대 흉부외과교실

배경 및 목적 : 다한증에 대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은 흉강경기구 및 술기의 발달로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상성다한증 등으로 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다한증환자를 대상으로 수술결과 및 보상성다한증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수술 전후 손과 발의 발한 차이, 온도차이, 그리고 상지 및 하지혈관의 혈류량을 측정하여, 수술이 발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방법 :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시행한 총 47례의 다한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또는 후향적으로 다한증의 분포양상, 술후 만족도, 합병증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술전후로 손가락 및 발가락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고, 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플러초음파검사를 하여 상지 손가락동맥, 요골동맥, 그리고 하지의 족배동맥에 대하여 혈류량을 수술전후 측정하였다.

결과 : 총 47명의 환자에서 총 99건의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하여,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기흉과 관련된 7건의 합병증, 안면다한증 재발 2건, 안검하수 1건, 수술중 발견된 기낭절제술이 2건이 있었다. 전화설문조사 또는 의무기록상 보상성다한증은 95%에서 호소하였으며, 수술을 후회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5례이었다. 발다한증은 흉부교감신경절제술후 46% [17례/37례]에서 향상되었다. 손과 발의 온도변화는 손에서 유의한 상승이 있었고, 우측[평균 1도]보다 좌측[평균1.9]에서 온도상승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발의 경우는 수술전후 우측, 좌측에서 각각 0.41도, 0.31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발다한증이 향상된 군 [N=11]과 비향상된 군간 [N=15]에 발온도차이는 없었다. 손과 발의 혈류량측정에서는 손의 경우 수술전후 유의한 혈류향상이 있었으나 하지동맥의 혈류량에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결론 : 다한증의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나 높은 빈도의 보상성다한증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술전에 환자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술후 손과 발의 다한증의 차이에서 손의 문한증은 신경절제에 따른 생리화적인 결과이며, 발다한증의 향상은 족배동맥의 혈류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흉부교감신경의 파괴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다른 기전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책임저자:문석환(강남성모병원) 발표자:김용환(강남성모병원)